

2018. 6. 1. [금] 언론보도



2018-05-31

민통선 캠프 그리브스서 주말마다 거리공연



경인방송

2018-05-31 00:00

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평화누리-캠프그리브스' 주말 셔틀
버스 운영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임진각 평화누리과 캠프 그리브스를 순환하는 주말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예약단체만 출입과 이용이 가능했으나, 6~10월 주말에는 가족단위 개별관광객들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순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4시) 운행 예정이며, 출발지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입니다.

이용은 탑승 30분 전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무대 뒤에서 접수 후 가능합니다.

hsm@ifm.kr

“놀아보자 in DMZ” 캠프 그리브스, 내일부터 공연 천국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공여지〉

DMZ평화정거장 공연 프로젝트

매 주말 마술·버스킹 등 다양
임진각서 셔틀버스 무료 운행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협상의 중심 테이블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6월부터 공연·예술의 허브로 거듭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일부터 오는 10월까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캠프 그리브스

DMZ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를 비무장지대(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DMZ평화정거장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젝트 기간 매주 주말마다 볼링장과 미군 막사, 야외 녹지 등 캠프 그리브스 내 곳곳에서 퓨전국악과 마술, 스트리트댄스, 거리극, 버스킹, 퍼포먼스, 시각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2일 오전 11시20분부터 퓨전국악 그룹 ‘아인’의 공연과 연극팀

(배낭 속 사람들)의 거리극 ‘변신’이 첫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매주 주말 임진각 평화누리과 캠프 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하루 3회 무료 운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DMZ 일원과 캠프 그리브스가 젊은 세대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DMZ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한국일보

2018년 6월 1일 금요일 A14면 사회

총성 대신 음악이 흐르는 DMZ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그리브스’
주말마다 공연·예술 무대로
임진각 평화누리서 셔틀버스도

비무장지대(DMZ) 일원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사진)’가 6월부터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매주 주말마다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부대내 볼링장, 막사, 야외 녹지 등에서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댄스, 거리극, 버스킹, 퍼포먼스,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첫 공연은 퓨전국악 그룹 ‘아인’의 공연과 연극팀 ‘배낭 속 사람들’의 거리극 ‘변신’이 무대에 오른다. 도는 앞서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공연·예술가들을 공모해 최종 10팀을 선정했다.



도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매주 주말(하루 3회)마다 임진각 평화누리와 캠프 그리브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탑승 30분 전 평화누리아외 공연장 무대 뒤에서 신청하면 된다.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문화를 안내할 전담 해설자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DMZ와 캠프 그리브스가 평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지로, DMZ와 불과 2km 떨어진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현장이다. 도는 이곳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숙박이 가능한 DMZ의 새로운 문화예술관광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이종구 기자

세계일보

2018년 6월 1일 금요일 Z10면 종합

파주 DMZ '캠프 그리브스'

이달부터 주말 거리공연·전시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비무장지대(DMZ) 미군 반환공여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가 공연·예술의 천국으로 거듭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일부터 10월까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캠프 그리브스 DMZ 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캠프 그리브스'는 DMZ 일원 민통선 내 유일 미군반환공여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를 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 예술공간으로 만드는 'DMZ 평화정거장 사업'의 하나로, 5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열릴 예정이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불링장, 미군 막사, 야외 녹지 등 캠프 그리브스내 곳곳에서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 댄스, 거리극, 버스킹, 퍼포먼스, 시각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질 전망이다. 도는 앞서 지난 4~5월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공연·예술가들을 공개 모집하고 참신성과 예술성, 대중성 등을 갖춘 10팀을 선정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 첫 공연은 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된다. 이날 퓨전국악 그룹 '아인'의 공연과 연극팀 '배낭 속 사람들'의 거리극 '변신' 등이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DMZ 일원과 캠프 그리브스를 젊은 세대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18년 6월 1일 금요일 026면 수도권/전국

파주 DMZ 캠프 그리브스서 놀자

10월까지 매주주말 거리공연 풍성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2km가량 떨어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반환주한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다양한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31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6~10월 토요일과 일요일 주한미군 반환기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평화정거장 거리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 관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진행되는 이번 거리공연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 내 불링장, 미군 숙소, 야외 녹지 등에서 6월 첫 번째 주말인 2일부터 청년 예술가 10개 팀이 참가해 퓨전국악, 마술, 스트리트 댄스, 거리극, 버스킹, 퍼포먼스, 시각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2004년까지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다. 특히 DMZ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는 이곳을 숙박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은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오후 1시 20분 두 차례 각각 30분씩, 일요일엔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한 차례 진행된다. 2일 오전에는 퓨전국악 그룹 '아인'이 대금·가야금·전자 바이올린 등 악기를 이용해 판소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오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원작 '배낭 속의 사람들'을 대중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연극 '변신'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일요일인 3일 오후에는 마술 공연 '매직 저글링'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마다 임진각 평화누리~캠프 그리브스를 오가는 45인승 셔틀버스도 무료로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오전 10시, 오후 1시·4시 하루 3차례 임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앞에서 출발한다. 탑승 30분 전부터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셔틀버스에는 전담 해설자가 동승해 캠프 그리브스 내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등 가이드 투어도 즐길 수 있다. /파주=이대희 기자

임진각 평화누리~캠프그리브스 셔틀버스 타고 주말 공연 '만끽'

경기관광공사, 10월까지 운행 가족 등 개별관광객 이용 가능

경기관광공사는 DMZ 평화정거장(PEACE PLATFORM) 문화·공연 행사 관람객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와 캠프 그리브스를 순환하는 주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와 공사는 DMZ 평화정거장 사업의 일환으로 캠프 그리브스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6월부터 주말 거리예술공연(토요일 2회, 일요일 1회)을 진행하며, 8월부터는 캠프 곳곳에서 초대작가 기획전과 시각 예술 공모전 등 특별기획전시가 열린다.

기존에는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텔 예약단체만 출입과 이용이 가능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는 가족단위 개별관광객들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순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셔틀버스는 일 3회(오전 10시, 오후 1·4시) 운행 예정이며, 탑승 30분 전부터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무대 뒤에서 접수한다.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어린이는 개인정보 기록 후 이용 가능하며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앞에서 출발하게 된다.

캠프 그리브스에 도착하면 예전 미군 기지의 건축양식과 아카이브 자료 전시 공간에 대한 가이드투어가 진행되고, '태양의 후에' 촬영지와 거리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6월 셋째 주부터는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서 관광상품을 구매해 서울(합정역)~임진각 평화누리·캠프 그리브스~도라산평화공원~서울(합정역)의 주말 당일 여행 코스도 이용 가능하다.

셔틀버스 이용 안내는 공사 캠프 그리브스 홈페이지(dmzcamp131.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